

제주, 오늘부터 의료진 화이자 백신 접종

정부, 어제 2분기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계획 발표 요양시설 65세 이상 AZ, 75세 이상은 화이자 접종

제주지역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3곳 의료진을 위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대상자별 백신 종류와 접종 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을 15일 공개했다.

이에 따라 2분기(4~6월)부터 요양병원·시설의 만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만 75세 이상 일반 고령자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이후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되는 만 65~74세 일반 고령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

코로나19에 감염 시 중증으로 진

행될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다만 연령에 따라 순서와 백신 종류, 접종 장소가 각기 다르다.

내달 첫 주부터 가장 먼저 접종을 받게 되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선 화이자 백신이 사용된다. 보관이 까다로운 화이자 백신을 사용하는 만큼 각 지역 소재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만 65~74세 어르신에 대한 접종은 6월 중 가능할 전망이다. 이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또 특수교육 종사자, 유치원·초·중등 보건의료,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교직원 및 간호인력에 대해서도 4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작하



15일 대전 중구 충남대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기로 했다. 더불어 의료기관 및 약국에 종사하는 보건 의료인, 경찰·해양·소방·군인 등 사회 필수인력과 항공 승무원도 2분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화이자 백신 303바이알을 실은 수송차량이 배편을 통해 이날 오

후 제주항에 도착했다.

도착한 화이자백신 접종 대상은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 3개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진 1800여명이다. 1개 바이알(vial) 당 6명이 접종할 수 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오영훈, 국토부 차관 만나 제2공항 논의

여론조사 결과 수용 피력할 듯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사진)이 오는 17일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다.



보이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요청함에 따라 지난 11일 제2공항을 추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당초 제주도는 여론조사 결과만을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국토부가 제주도의 입장을 요청하면서 전문가 집단의 자문까지 받고 도의 입장을 수립했다.

이에 대해 도민사회에서는 원 지사가 민의를 거스르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원 지사가 본인의 생각과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 결과를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은 무모하고 황당하기까지 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국회·부미원기자

오 의원은 이번 면담에서 여론조사 결과 수용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의원은 이번 면담을 추진한 계기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 의지를 공식 표명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소상공 제조업체 환경 개선·마케팅 지원

도-경제통상진흥원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상공인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대행협약을 맺고 사업장 환경개선 및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창업한 도내 소상공인 중 주된 업종이 제조업인 사업자, 현장실사 및 선정 심의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11개 내외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옥외 간판, 인테리어, 상품패널 진열대, 제품 제조시설을 위한 환경개선 비용과 리플릿·포장박스 제작, 온·오프

라인 광고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총 8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러 부가세를 제외한 환경개선 및 홍보마케팅 총비용의 20%는 자부담해야 하며, 지원금의 70% 이상은 환경개선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신청자 모집은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도정보식민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지원사업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해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소상공인지원팀 064-805-3382)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대리기자

빨난 제2공항 찬성 단체, 도의회 항의 방문

찬성 단체 "일부 도의원들 갈등 유발 자제시켜 달라" 좌 의장 "찬성 반대 떠나 건설 여부 조기 결정 촉구"



제주 제2공항 찬성 단체들이 15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찾아 면담을 가졌다.

제주제2공항건설촉구 범도민연대, 성산을 청년 희망포럼 등 제2공항 찬성 단체가 15일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면담 자리에서 "최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일부 도의원들의 행위를 자제시켜 달라"며 "갈등 해소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좌남수 의장은 "찬성과 반대를 떠나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조기에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2공항 찬성 단체 측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제주도의회 의장실을 찾아 좌남수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찬성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일부 도의원들이 개인적인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등 도민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제2공항 관련 도민사회 갈등에 대해 의장이 역할

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좌 의장은 "의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일일이 제재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의장에겐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찬성 단체 측은 "도의회, 제주도,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한 논의나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중앙정부 눈치만 보느라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특히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 전체 도민은 '반대'했다고 못박으며 찬성 측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좌 의장은 "현재 제주도에 공항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도민

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다만 결정 권한을 가진 제주도가 추진, 철회라는 하나의 입장을 발표하기 전 도민들에게 사전 설명이 전제돼야 했다"고 답했다.

이어 "도의회가 찬성·반대 어느 한쪽의 입장만 대변할 수는 없다. 다만 도민 의견 여론조사가 끝났고 결과가 전달됐기 때문에 찬·반을 떠나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결정을 내려달라는 결정 촉구 결의안 정도는 채택할 수 있을 것 같다. 의회 차원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국토부는 제2공항 추진해야" 제주도건설단체연합회 성명

제주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회장 장대범)는 15일 국토교통부에 국책사업인 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한 제주도의 입장을 수용해 공항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내 9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2공항 건설을 지지한다"며 "제2공항 건설은 비단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경기를 살리고 공항이 들어설 지역 주민과 도내 청년층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만큼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안전하고 쾌적한 하늘길은 도민의 숙원이고 제2공항은 모든 추진 과정에서 국책 사업의 당위적 절차인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를 빠짐없이 밟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공항은 건설예정지 주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최첨단 공항으로 추진하고 바다방향 이·착륙 절차 수립, 저소음항공기 도입 등의 소음방지대책, 이익공유체계 등 상생계획도 수립될 것"이라며 "이번 제주도정의 입장 표명을 계기로 더 이상의 찬반논쟁으로 인한 소모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산지관리 제도개선 국민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청 주관으로 국민들이 평소 소관 산지이용 및 관리 등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산지관리 제도개선 국민공모제가 추진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관련 제도개선 과제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세부주제로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방안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기준절차, 제출서류 등 관련

▷산지관리제도와 관련 국민 만족도 제고 방안·민원해소 방안 등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제안서를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산림청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심사결과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선정된 과제는 산지관리법령 개정 등에 반영될 계획이다. 문의·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142), 제주도 산림휴양과(064-710-6773), 고대리기자

제주도의 제주제2공항 사업 추진 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국토교통부는 국책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1.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 의지를 담은 제주도정의 결단에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표합니다.

제주도는 여론조사 결과 성산지역 주민들의 압도적인 찬성 의견으로 지역 주민 수용성은 이미 확보된 것이며, 제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 제주제2공항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의지를 담은 제주도정의 결단에 우리 건설산업계는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합니다. 이같은 우리의 입장 표명은 비단 건설산업계만을 위한 것이 아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제주경제 회복과 제주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2. 제주 제2공항은 밝은 제주 미래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5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제주제2공항은 지역의 경기를 살리고, 공항 지역 주민과 제주 지역 청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며, 제주의 경제 지도를 바꿔나갈 수 있기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국책사업입니다. 제주 남부지역(서귀포) 접근성 개선 및 취항 항공편 증가, 항공공간 경쟁을 통한 항공권 가격인하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동부지역에 젊은층 인구 유입 및 제주 도정 주도의 제주제2공항 주변지역 복합개발 등을 통해 그간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제주 동부지역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하나 된 제주의 미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3. 국토부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국책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현 제주공항은 지속적인 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넘어 안전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전은 도전과제가 아닙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늘길은 도민의 숙원입니다. 제주제2공항은 모든 추진 과정에서 국책 사업의 당위적 절차인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를 빠짐없이 밟아왔습니다. 또한, 압도적으로 공항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의 '찬성'이 높았던 여론조사는 그만큼 제주제2공항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주 도정의 입장을 수용해서 안전한 제주를 위해 조속하고 과감히 제주제2공항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4. 도민분열과 국책사업을 발목 잡는 일을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다른 어떤 SOC국책사업보다 충실하고 면밀하게 검토·보완해 나가며 도민 민원과 우려사항에 대하여 여러 대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건설예정지 주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친환경·최첨단 공항으로 추진 및 바다방향 이·착륙 절차 수립, 저소음항공기 도입 등의 소음방지대책, 이익공유체계 등 상생계획도 수립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주도정의 입장표명을 계기로 더 이상의 찬반논쟁으로 인한 소모전을 중단하고,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희망찬 제주를 위해 제주제2공항 건설에 힘을 모읍시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

-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 대한국계설비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